

글로벌 SW시장, 코로나에도 1468조원 규모...韓기업 분투

코로나19에도 2020년 글로벌 SW 시장 규모 전년 수준 유지

중남미 등 신흥시장 성장세 돋보여...미국도 소폭 성장

삼성SDS·LG CNS·SK C&C 등 국내 기업 시장 확대 추진

2020년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관측됐다.

3일 IDC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SW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속 비대면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8% 증가한 1조 3499억 달러로 전망됐다.

IT 서비스 시장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7043억 달러로 예측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 약화가 우려되면서 주요 기업들은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IT 활동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축소되면서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패키지 SW 시장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6456억 달러로 전망됐다. 비대면 환경 확산으로 비즈니스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 및 클라우드

드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돋보였다.

중남미 시장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가 기대됐고, 이어 중국(10.0% ↑), 아시아/태평양(5.4% ↑) 등 신흥 시장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전망됐다.

전체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미국은 6351억 달러(1.6% ↑)로 소폭 증가했고, 중동/아프리카(0.6% ↑), 서유럽(0.1% ↑) 등도 전년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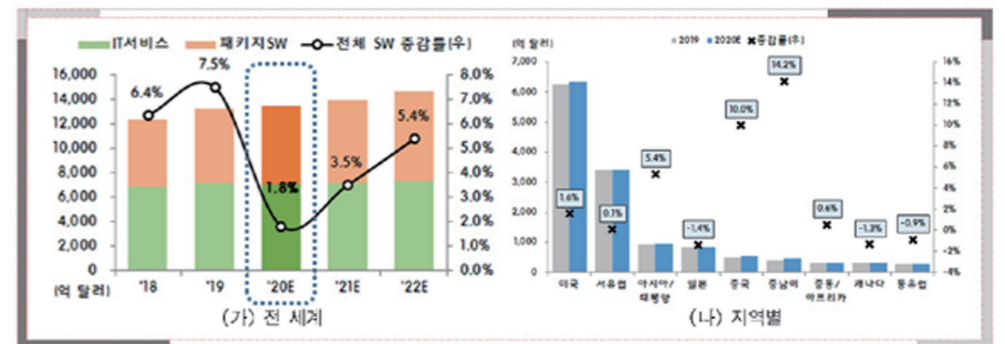
반면 일본(1.4% ↓), 캐나다(1.3% ↓), 동유럽(0.9% ↓) 등은 하락세가 예상된다. 다만 감소 폭이 2%를 하회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우려와는 달리 시장에 연착륙한 것으로 보여졌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따르면 국내 IT서비스 기업은 다양한 IT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며 시장 확대를 추진했다.

삼성SDS는 IT 솔루션 지원 확대, LG CNS는 해외 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 SK C&C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 구축 등 IT 서비스 활용 확대를 도모했다.

삼성SDS는 클라우드 기반 IT 솔루션 무료 체험 서비스를 확대하며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을 지원했다. 지난해 7월 AI·IoT·블록체인 플랫폼과 자동화·협업 솔루션 등을 공개해 이미 730여 기업이 체험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기업들이 실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에는 보안관리(EAMS)와 3D 설계 데이터 협업 솔루션을 추가 공개했으며 연내 자연어 처리와 이미지 탐색·분석, 영상분석 등 AI 코어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AI 코그니티브' 서비스 오픈도 추진했다.

LG CNS는 지난해 12월 14일 인도네시아 국제 행정시스템(CTAS, 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업무 전환을 시스템화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 2024년 완료할 예정이다. 역대 전자정부 수출 사업 중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K C&C는 지난해 12월 22일 NH농협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PFM) 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한지 4개월만에 1차 서비스 오픈을 완료했다.

1차 서비스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고객 자산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자산관리, 소비분석, 금융상품 추천, 고객별 맞춤형 혜택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

심으로 구성됐다. SK C&C는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 자산관리 및 고객별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도 추가로 구현할 계획이다.

한편 데스크톱과 모바일/태블릿 시장은 지난 11월 상위 OS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데스크톱 시장의 경우 윈도우10은 64.2%로 전월대비 2.0%포인트 늘어난 반면 윈도우7은 18.8%로 2.1%포인트 감소했다.

모바일/태블릿 시장의 경우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전월대비 10.0%포인트 증가한 81.2%를 달성했다. 반면 애플의 iOS는 10.5%포인트 감소한 16.4%로, iPadOS(1.9%)와 합산 점유율은 18.3%로 급감했다. 신봉우기자

LGD, 美 CES 2021서 구부러지는 48인치 OLED 패널 최초 공개 계획

'벤더블 CSO' TV 게임할 때 커브드 화면 사용 가능



LG디스플레이는 오는 11일 미국 현지시각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에서 게이밍에 최적화된 '48인치 벤더블 CSO(Cinematic Sound OLED) 패널'을 최초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48인치 벤더블 CSO 패널'은 종이처럼 얇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의 장점을 활용해 화면을 최대 1000R(반경 1,000mm 원의 휘어진 정도)까지 자유롭게 구부렸다 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TV를 볼 땐 평면으로 쓰다가 게임을 할 땐 커브드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해 화면 중앙에서 가장자리까지 균일한 시청거리를 제공해 시각적 몰입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이 제품은 별도의 스피커 없이 OLED 패널 자체가 진동해 화면에서 직접 소리 내는 'CSO' 기술을 적용, 화면 속 등장인물들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하며, 커브드 일 때는 사용자 중심으로 소리가 집중되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

다.

특히 '48인치 벤더블 CSO'는 기존 CSO보다 한 단계 진화된 초박형 필름 CSO 기술을 적용, OLED 패널을 진동시켜 소리를 만드는 부품인 엑사이터(Exciter)의 두께를 기존 9mm에서 0.6mm로 획기적으로 줄여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으며, 얇은 화면에서도 압도적인 사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인 OLED는 ▲무한대의 명암비가 만들어 내는 차원이 다른 선명하고 입체감 있는 화질 ▲0.1ms의 빠른 응답속도 ▲초당 120장의 화면 재생률 ▲떨림이나 끊김 없는 자연스러운 화면을 제공하는 넓은 가변주파수(40~120Hz Variable Refresh Rate) 영역 등 게이밍에 압도적인 성능을 구현하여 최근 게이밍 유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LG디스플레이 OLED 패널은 유수의 글로벌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블루라이트 저감, 플리커프리 인증을 받는 등 눈이 편안한 디스플레이로 게이머들의 눈 건강까지도 생각하는 디스플레이로 평가받고 있다.

LG디스플레이 TV사업부장 오창호 부사장은 "48인치 벤더블 CSO는 게이머들에게 기존의 디스플레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최적의 게이밍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CES 2021 전시 참가를 알리는 티저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오는 4일 공개한다.

김민정기자

우체국예금 최고 연 1.3%

'e-공동구매 정기예금' 출시

한도금액 5000억 원 3월말까지 판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e-공동구매 정기예금' 특관상품을 출시하고, '윈소의 해 확실한 행복찾기' 이벤트를 연다.

e-공동구매 정기예금은 1월4일부터 3월31일까지 판매하며 전체 판매금액 5000억 원을 한도도 최고 연 1.3%의 금리를 제공한다. 판매한도인 5000억 원에 도달하면 판매가 종료된다.

실명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비대면(인터넷, 스마트뱅킹) 가입(0.1%)과 공동구매 우대이율(0.2~0.4%), 기본이율(0.6~0.8%)을 합산, 최고 연 1.3%(3년 만기, 1년 만기 시는 1.15%)의 금리를 제공한다.

특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윈소의 해 확실한 행복찾기'소확행 이벤트도 열린다. 상품 가입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폰12 PRO(6명)와 모바일 커피쿠폰(250명)을 제공하고, 소미 고객과 온라인가입 첫 고객을 각 50명씩 별도 추첨해 한우구입용 상품권(10만원 상당)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박중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저금



리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고금리 특관 상품을 준비했다"면서 "우체국예금은 따뜻한 서민금융의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네이버 스마트주문, 중소기업인 결제수수료 3월까지 전액 지원 연장

지난해 4월부터 이어온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책 적용 기간 늘려

네이버는 내년 1분기까지 '스마트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SME)을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주문은 네이버에서 검색만으로 매장 정보는 물론 간편하게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비대면 주문 기능으로,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SME를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연말까지 결제 수수료를 전액 무료 지원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재확산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은 물론 SME의 사업 원활화를 돕기 위해 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 정책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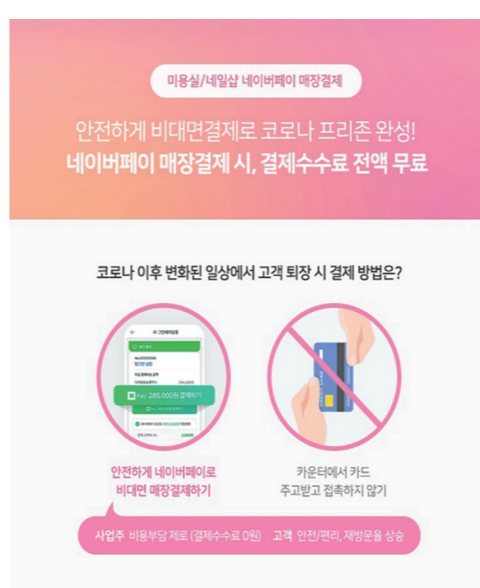
네이버 스마트주문은 지난해 결제 수수료 지원과 더불어 사업자의 매출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왔다.

특히 스마트주문을 통해 포장하면 3000원 이상 주문 건에 대해 1000원을 적립해주는 프로모션은 9월 한 달간 진행 예정이었으나 사

업자, 이용자 양측에게 안전한 주문 경험을 제공하고 SME는 단골손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어, 12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네이버 스마트주문 신용주 리더는 "스마트주문은 네이버에서 매장의 정보와 함께 다양한 주문 기능이 노출돼 광고비 없이도 무료로 매장을 홍보할 수 있어 외식업체에 중사하는 SME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번 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 연장 정책으로 SME의 매출 증대와 코로나 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미용실, 네일샵 등 '뷰티' 업종 매장에서 활용 가능한 '네이버페이 매장결제'의 결제 수수료도 3월 31일까지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 매장결제'는 네이버 예약을 하고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사업자가 네이버 앱으로 언제든 결제 요청서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쁜 업무 중 상황에 맞춰 결제 요청서를 미리 전달하는 등 효



율적으로 시간관리를 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결제를 진행해 대인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매장결제 역시 지난 2020년 4월부터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왔다. 서선욱기자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

'후속투자 6709억·일자리 1898개'

의식주컴퍼니·마켓컬리·레이니스트 등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 참가 기업들이 후속투자, 매출 증대 등에 힘입어 프로젝트 신청 당시보다 일자리를 총 2000개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아기유니콘200,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들은 총 6709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고 매출도 50% 넘게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1898개 창출했다.

프로젝트별로는 아기유니콘200 참여기업이 6개월 만에 기업당 11개, 총 449개(26.9% ↑)의 일자리를 늘렸고,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은 신청 당시보다 1449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는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 '아기유니콘(아기유니콘200)'을 육성하고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예비유니콘'을 보증(예비유니콘 특별보증)하는 중기부 사업이다.

작년에 선정된 예비유니콘 27개는 기보에서 평균 60억원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지원 받았다.

아기유니콘200 선정 기업 가운데 비대면 세탁물 서비스 '런드리고'를 선보인 의식주컴퍼

니가 선정 당시인 작년 4월 전체 근로자 73명에서 같은 해 11월 118명으로 고용을 60% 이상 늘렸다.

또 베러웨이시스템즈도 41명을 신규 고용해 작년 4월 148명이던 직원이 11월 189명으로 28% 증가했다.

중기부는 작년 6월 고피자, 버넥트, 호두랩스, 수퍼트리, 하이센스바이오 등 아기유니콘 40개를 선정한 바 있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 기업 중에는 마켓컬리가 2019년 4월 예비유니콘 신청 당시(353명)보다 647명(183% ↑)의 일자리를 늘려 전체 고용인원이 작년 11월 현재 1000명으로 증가했다.

또 뱅크샐러드로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이니스트도 재작년 하반기 고용인원이 107명이었으나 작년 11월 233명으로 1년만에 고용이 126명(118%) 늘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기업들은 2019년 1년간 4대그룹 신규고용 2만 1000명의 5.6배에 달하는 11만 7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고용의 중심축을 담당했다. 기동취재본부